

## 터키와 그리스로 떠나는 효도여행 - 1



### 9/10 도 끝음 (일차, 서울/터키 이스탄불)

추석연휴기간을 이용해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효도여행을 떠나고자, 나와 형은 여행 떠나기 2달여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여행을 준비해왔다. 바쁜 직장생활로 인해 서로가 휴가기간을 조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두 형제의 효심(?)과 각고의 노력으로 일정을 겨우 맞추었다.

여행지는 터키로 정했다. 그 이유는 첫째, 나의 마일리지로 추석연휴 기간에 갈 수 있는 무료 항공권이 남아있는 곳이 '터키 이스탄불'과 '영국 런던'밖에 없었고 둘째, 영국과 터키 중 부모님께서 장거리로 왕복하기에는 영국보다는 터키가 부담이 적었고 셋째, 평생을 기독교인으로 살아오신 부모님들에게 터키는 성지순례를 더불어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우선 제일 중요한 교통편과 숙박은 한국에서 미리 인터넷을 통해 예약하는 것으로 해결했다. 묵을 호텔(skyscanner와 Booking.com), 인천공항과 이스탄불공항 간 왕복 항공권, 이스탄불에서 데니즐리(Denizli) 공항(파묵칼레) 편도 항공권 및 보드룸(Bodrum)에서 이스탄불공항 편도 항공권(터키 저가항공사 www.flypgs.com), 이스탄불과 아테네 공항 간 왕복 항공권(그리스 항공사 www.aegeanair.com), 터키 국내 이동용 렌터카(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기간 동안 이슬람교 2대 종교 축일 중 하나인 쿠르반 바이람(Kurban Bayram) 연휴와 겹쳐서 렌터카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Avis/Hertz/Budget/Alamo 등 세계 유명 렌터카 체인점을 망라하는 사이트(www.carrentals.com)와 각 렌터카 회사별 사이트를 전전했지만 구하지 못하다가, 결국 4일만 사용해도 되는 렌터카를 5일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여행 떠나기 하루 전날 터키 내 지인을 통해 어렵사리 예약에 성공하여 터키/그리스 효도여행 준비를 마무리했다.

공항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탑승 수속을 끝내고 이스탄불행 비행기에 몸을 맡긴다. 올해 봄에 발칸반도 5개국(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세르비아)을 다녀온 후 준비한 여행이지만 여행이란 녀석은 언제나 묘한 매력과 설렘을 동반한다. 이스탄불 가는 기내에서 최신영화 3편, 터키 관련 서적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이스탄불 아타튀르크 국제공항 도착이다. 공항에서 택시로 20여 분 달려 테오도시우스 성벽 인근에 위치한 한인민박집에 도착한다. (조식으로 한식을 제공하고 한국인 주인장이 제공하는 지역 여행정보가 쓸쓸하기에 나는 해외여행 시 한인민박집을 애용하는 편이다.) 늦은 밤에 도착한 관계로 다음날을 기약하며 바로 취침모드로 돌입한다.

### 9/11 일 끝음 (2일차, 터키 이스탄불)

시차관계로 새벽 3시경에 눈이 떠진다. 그래도 오늘부터 하루 종일 부모님을 모시고 움직여야 하기에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해본다. 한인민박집이지만 아침은 터키식 조식으로 나온다. 터키빵인 예크멕빵, 우유, 씨리얼, 치즈, 차, 과일 등으로 포식한 후(나는 아무래도 여행자 체질이다.) 이스탄불 관광명소의 하나인(한국의 남대문시장이나 동대문시장에 해당하는) '그랜드바자르'로 택시로 발 빠르게 이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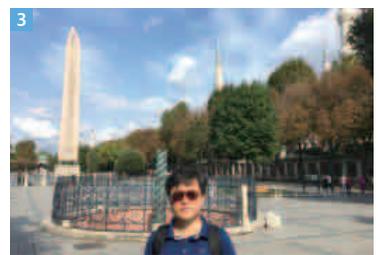
하지만 아뽤싸!!! 터키의 연휴인 바이람 기간 중이라 '그랜드바자르'가 문을 닫았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여의치 않아 시간도 절약할 겸 택시를 타고 '아야소피아 성당'으로 향한다. 그런데 여기서 '택시요금 바가지 사건'이 터진다. 택시운전사가 연휴 기간엔 트램(전철)이 다니는 길로는 택시가 달릴 수 없다고 하더니 여기저기 길을 빙빙 돌면서 달리고는 예상요금의 약 3배를 달란다. 부모님 모시고 기분 좋게 여행하려던 첫날이라 속은 상했지만 어쩔 수 없이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내린다.(세계 어느 나라나 바가지요금은 존재하는구나... 쩌)



현존하는 비잔틴시대 최고의 걸작품이자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이 건축되기 이전까지 가장 큰 성당으로서의 위용을 자랑했던 '아야소피아 성당'에 입장한다(입장료 40터키리라<sup>1리라=370.13원(2016년 10월 21일 기준)</sup>) 들어서는 순간 성당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만다. 바티칸 '베드로 성당'은 압도적인 규모와 다양하고 예술성 넘치는 聖畫<sup>성화</sup>로, 스페인 바르셀로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유명한 건축가 가우디의 기상천외한 설계양식으로 유명하다면 아야소피아 성당은 비잔틴 문화와 이슬람 문화의 자연스러운 조화에서 그 가치가 빛난다.



점심은 부모님을 위해 한식집(불고기, 김치찌개, 된장찌개, 파전, 계란찜 등)에서 해결하고 힘을 얻어 '술탄아흐멧 광장' 구경에 나선다. 지난 1월에 터키에서 발생한 폭탄테러 장소인 '카이저 빌헬름 분수'를 지나며 테러로 희생당한 사람들의 명복을 빈다. 여기가 바로 무고한 관광객 10명이 사망하고 한국인도 1명이 부상을 당한 곳이다. 터키로 효도여행을 떠난다니 주변에서 왜 하필 테러가 벌어진 곳으로 가느냐고 걱정도 많이 하고 만류도 했지만, 차라리 반대급부로 관광객이 확연히 줄어들어서 거리가 복잡하지 않아 여유롭게 다니기 좋을 것으로 예상했고, 그 예상은 맞아 떨어져서 너무나 넉넉하고 느긋한 여행이 가능했다. 또한 주요 관광지 곳곳에 진을 치고 있는 군인과 경찰들로 인해 치안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감 없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잘 다녔다.



'술탄아흐멧 광장'은 3세기 초에 만들어진 전차경주(영화 '벤허'에서 본 것처럼)를 하던 원형경기장이다. 이곳은 빌헬름 분수를 위시하여 이집트 룩소르에서 가져온 '테오도시우스 오벨리스크', 그리스가 페르시아와 벌인 살라미스해전에서 승리한 기념으로 만든, 뱀 세 마리가 서로 얽혀 있는 형상의 '청동뱀 기둥'이 있고, 가까이에 '아야소피아 성당'과 '술탄아흐멧 모스크(블루모스크)'가 있어서 테러 발생 이전에는 관광객들로 차고 넘쳤었던 곳인데 여행 당시는 너무 여유로웠다.

터키의 유명한 체인점에서 쫘득쫘득하고 찰진 아이스크림으로 지친 심신을 달래고 트램과 버스를 번갈아 갈아타고 숙소로 향한다. 부모님을 모시고 다닌 긴장감 탓인지 녹초가 되어 저녁도 안 먹고 꿈나라로 떠난다.

**9/12 월 밝은 (3월차, 터키 이스탄불)**

- 1 아야소피아 성당 앞에서(좌로부터 형, 아버지, 어머니, 필자)
- 2 블루모스크 전경
- 3 청동뱀기둥, 오벨리스크 앞에서

새벽 4시에 역시나 시차 문제로 일찍 기상하지만 체력 비축을 위해서 침대에 누워서 빈둥거리다 보니 이슬람국가에서 하루 5번씩 행하는 기도 중 첫 기도를 알리는 코란 읽는 소리가 들린다.(시간상으로는 새벽 5시 30분경이다)  
 숙소 주인장은 이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자고 있어야 시차적응이 된 거라고 하는데 나는 아직 멀었구나... 오늘은 지하철로 움직이기로 한다. 동네빵집에서 생수 및 터키의 국민간식 시미트빵(깨를 바른 빵으로 고소하다)을 구입해서 배낭에 채운 후 지하철역으로 향한다. 지하철역에서 교통카드를 충전(지폐 충전만 가능함)하고 지하철을 타고서 유럽대륙에서 보스포러스 해협의 해저터널을 가로질러 아시아대륙으로 향한다. 이스탄불의 매력은 바로 동서양이 만나는 지점이라는 거다. 내가 머물고 있는 숙소와 주요 관광지는 이



4 스탠불, 즉 유럽대륙에 속해있고, 이스탄불은 아시아대륙에 속해 있는 점이 특이하다. 아시아대륙의 첫 관문인 '위스퀴다르'역에 도착해서 아시아대륙에 발을 딛는다. 지하철 역 주변과 인근의 사원을 둘러보고, 아시아대륙 선착장에서 유럽대륙으로 향하는 배에 승선한다.(이스탄불 교통카드사용 가능) 이스탄불이라는 거대한 도시(인구가 약 1,600만 명이고 유동인구까지 합하면 거의 2,0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한다)가 유럽과 아시아 대륙에 걸쳐 있기에 이 배들은 대중교통 용도로 사용된다.



5 다시 유럽대륙에 속해 있는 '애미뇌뉴' 항구에 20여 분만에 도착한다. 어머니께서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해서 '갈라타 다리' 아래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유료(사용료 1리라)로 이용한다. 유럽에 나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공중화장실이 무료이고 곳곳에 위치한 대한민국이 최고로 살기 좋은 나라이다. 항구에서 유명한 '고등어케밥'(8리라)을 구입한다. 항구에는 정박한 흔들거리는 선상에서 고등어를 바로 구워 빵 사이에 넣어서 만들어 주는데, 비린내가 날 것 같았지만 의외로 맛이 깔끔하고 담백하다.



6 '애미뇌뉴' 항구 '갈라타다리' 옆 매표소에서 티켓을 구입(12리라)하여 유람선을 타고 1시간 30여 분에 걸친 보스포루스 해협 관광에 나선다. 보스포루스 해협은 북쪽의 흑해와 남쪽의 마르마라 해를 연결하는 중요한 수로이다. 유람선은 2층 뒷자리가 최고 전망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타자마자 얼른 그쪽으로 향한다. 운 좋게 돌고래 2마리가 유유히 유평하는 모습을 목격한다.

해협을 오르내리는 동안 아시아대륙과 유럽대륙이 양쪽에서 우리를 맞이한다. 블루모스크, 갈라타 타워, 돌마바흐체 사원, 돌마바흐체 궁전, 강변을 따라 늘어진 수많은 별장들, 루멜리 히사리 요새 등 수많은 볼거리들이 스쳐 지나가며 내 눈을 즐겁게 한다. 해협을 한 바퀴 돌고 다시 항구로 돌아오니 출출하다. 항구 근처의 사람이 붐비는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다년간의 경험에 비추어 봐서 잘 모를 때는 사람이 많은 곳이 맛있는 집이다) 양갈비와 치킨 바비큐 등을 시켰는데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식사 후 어머니를 모시고 식당에서 좀 떨어진 화장실을 찾아가는데 웬 친절한(?) 터키인이 자기를 따라 오란다. 그렇게 멀리까지 화장실을 찾아가지 말고 가까이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란다. 나는 연로한 어머니를 위한 따뜻한 배려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화장실을 잘 사용하고 나오는데 사용료로 1리라를 달란다. 순간, 식당 화장실은 무료인데 유료화장실로 낫았구나 라는 헛웃음이 나오면서 어제의 택시비 바가지 사건까지 스쳐 지나가며 터키인들의 알팍한 상술에 화가 치밀어 오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키인들 대부분은 매우 친절하고 특히 한국인이라고 하면 형제, 친구라고 하면서 호감을 보인다

식사로 충전한 우리는 '애미뇌뉴'역에서 트램을 타고 2정거장 떨어진 톱카프 궁전을 찾는다. 궁전 내부에 있는 'Flower & Rose Garden'을 둘러보며 휴식을 취한다. 여기도 당연히 터키의 독립전쟁 영웅이자 국부로 칭송받는 케말 파샤의 동상이 자리하고 있다.

4 아시아대륙 위스퀴다르 항구에서 (바다 건너편이 유럽 대륙이다)

5 보스포루스 해협 유람선 선상에서 (뒤에 보이는 다리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보스포루스 대교)

6 톱카프 궁전 앞 공원 케말 파샤 동상에서

7 유람선 상에서 바라본 보스포루스 해협 파노라마 전경



오늘의 여정을 마치고 숙소에 도착했는데 그리운 한국 땅 경주 인근에서 관측사상 최고 강도인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한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기를 기도하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9/13 화요일 (4일차, 터키 이스탄불/파묵칼레시)**

오늘도 어김없이 이슬람 사원의 기도 알리는 시각인 새벽 5시 30분에 잠이 깬다. 이제 나에게는 친숙한 기상 알람 소리이다. 오늘 일정은 두 팀으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한다. 한 팀(형과 부친)은 신시가지인 탁심(TAKSIM) 광장으로 관광 나가고(80T 버스 타고 출발), 무릎이 불편해서 여행 다니기 힘들어하시는 모친과 나는 오전 반나절을 숙소에서 쉬면서 체력을 회복하기로 한다. 아버지는 팔손이 멀지 않았음에도 건강하게 잘 다니시는 걸 보니 자식으로서 흐뭇하고 감사할 뿐이다.



어머니는 틈틈이 주무시고, 나는 숙소에서 하릴없이 빈둥거리며 한국에서 가져간 터키역사문화 서적을 탐독하며 터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다. 이 “책자 터키 신화와 성서의 무대, 이슬람이 숨 쉬는 땅, 이회철 지음”에 의하면 『한민족과 터키족은 조상이 같다는 이론을 설파한다. 중앙아시아에서 기원한 한민족의 조상인 예맥족은 만주 몽골계와 튀르크계를 포함하는 같은 조상에서 갈라진 종족이며, 한민족의 무리는 동쪽으로, 튀르키족의 무리는 서쪽으로 이동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중국에서는 당시 돌궐(튀르크)과 흉노(훈)족으로 지칭했으며, 어순이 우리나라와 같은 점 등을 근거로 든다. 터키는 헬레니즘 시대, 로마 시대, 비잔틴 시대, 셀주크 시대, 오스만 제국 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명의 유적과 유물이 산재해 있는 나라이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발원한 곳, 케번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태어난 **시노프**,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과 제2의 고향인 **산르우르파와 하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두 개에 해당하는 아르테미스 신전과 마우솔로스 능묘가 있는 **에페스와 보드룸**, 창세기의 무대로 노아의 방주가 있다고 믿어지는 **아라랏산**, 초기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 동굴집에서 거주한 **카파도키아**,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의 작가 호메로스가 탄생한 **이즈미르**,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토스가 태어난 **보드룸**, 율리우스 시저가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라는 말을 남긴 **아마시아**, 사도 바울이 태어난 **타르수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7대 교회가 있는 곳 등이 위치해 있으며, 또한 하늘이 내려준 천혜의 나라이자 살기 좋은 터키이지만 신은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고 지진이라는 오점을 남긴다. 미국 AP통신 1999년 세계 10대 사건 중 1만8천여 명이 사망한 터키지진이 세 번째로 선정되기도 했다.』

오후에는 1988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새하얀 석회층이 장관을 이루는 ‘파묵칼레’로 향한다. 이스탄불 제2의 공항인 사비하 공항(우리나라의 김포공항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으로 가서 국내선을 타고자 ‘탁심 광장’ 인근 ‘포인트 호텔’ 앞에서 공항버스(15리라)를 탄다. 1시간여를 걸려 사비하 공항에 도착하여 저녁식사(양고기스프, 치킨 프라이드, 콩스프, 샐러드 등)를 마치고, 공항검색대를 통과하는데 ‘**지갑분실사건**’이 발생한다. 검색대를 통과하면서 아버지의 비상금이 들어있어서 소중히 보관하고 있던 지갑이 사라진 것이다. 검색대에 흘렸는지 다시 가서 문의하기도 했지만 지갑은 보이지 않는다. 결국 소매치기 당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며 씁쓸히 비행기에 탑승하는데 아버지 조끼 주머니에서 지갑을 발견한다. 아버지가 검색대를 통과하면서 지갑을 조끼 주머니에 넣어 둔 것을 깜빡한 것이다. 안도의 한숨과 함께 또 하나의 해프닝이 막을 내린다.



**8** 탁심 광장의 이스티클랄 거리를 달리는 귀여운 트램

**9** 데니즐리 공항 도착

파묵칼레를 가기 위해선 인근 ‘데니즐리 공항’까지 날아가야 한다. 한국에서 예약한 터키의 저가항공사인 ‘페가수스 항공’을 이용한다. 공항 활주로 정체로 인해 예정 시간보다 20여 분 늦게 이륙하여 1시간 20여 분을 날아서 ‘데니즐리 공항’에 도착한다.



10

공항에서 터키 내 지인을 통해 어렵사리 예약한 렌터카를 인수하고 다시 1시간여를 달려서 파묵칼레의 호텔로 향한다. 늦은 밤에 비가 추적추적 내리니 운전하기에는 불편하지만 운치가 있다. 이 기간은 건기여서 비를 보기가 쉽지 않은데 운이 좋다. 터키 여행 중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는 비다. 호텔에 도착하니 시간은 자정이 지나있다. 패밀리 룸에 짐을 풀고 몸을 누이니 침대가 나를 삼켜버린다.

**9/14 수 맑음 (5일차, 터키 파묵칼레/라오디게아/카라봉네트)**

새벽 5시 30분 기도를 알리는 알람 소리에 자연스럽게 눈을 떴다가 다시 잠들었다 일어나니 6시 30분이다. 호텔조식은 8시부터 시작 이라는데 배가 너무 고프다.(아침 좀 일찍 주지 말입니다~~) 늦은 아침을 먹고 소아시아 7대 교회 중 하나인 '라오디게아 교회'로 향한다.(입장료 10리라)

신약성경 시대에 라오디게아는 양모가 풍부하고 안약 등 의약품이 유명했으며, 재물의 유혹과 생활의 편안함으로 인해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로 책망을 받았다.(라오디게아 지역은 실제로 물이 좋지 않아 멀리 파묵칼레로부터 관을 통해 온천수를 공급받았지만 오는 도중 물이 식어 '미지근' 하게 되었다.) 라오디게아 지역의 옛 영화의 흔적들을 둘러보고 파묵칼레로 이동한다.



11



12

10 라오디게아 유적지

11 호텔에서 바라본 파묵칼레 파노라마 전경

12 파묵칼레 온천수에서

파묵칼레의 정상적인 입장 코스는 '남문(Southern Gate)'이다.(입장료 35리라) 입구로 들어서자마자 바로 기원전 160년경에 건설된 고대도시인 '히에라폴리스' 유적이 펼쳐진다.

히에라폴리스는 원래 온천수를 이용한 질병치료와 휴양을 위한 도시였다고 한다. 멀리 야외 원형극장이 보이지만 부모님을 모시고 걸어가기에는 역부족인지라 포기하고 시민들의 자유토론 장소였던 고대 로마 유적인 아고라(Agora)를 지나, 로마 시대의 고대 기둥들이 수영장 안에 가로누워 있는 'Antique Pool'을 둘러보고(입욕료가 파묵칼레 입장료에 육박하는 1인당 32리라의 거금이어서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나온다.)



이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묵칼레에 들어선다. 하얀 석회암이 만들어낸 암벽과 기이한 석회석 바닥, 계단식으로 고여 있는 비취색 온천수의 색감으로 인한 자연의 신비와 오묘함, 경이로움에 넋을 잃고 만다. 이곳은 테러로 인한 관광객 감소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세계 각국에서 몰려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안 그래도 햇살이 강한 나라인데 여기서는 하얀 석회암에 반사된 햇빛으로 인해 눈을 뜰 수가 없다.(선글라스는 필수품이다.) 준비해 온 수영복을 입고 온천수에 몸도 담그고 유유자적하며 시간을 보낸다. 패키지 관광을 온 사람들은 워낙 풍광이 뛰어난 이곳에 잠시 들렀다가 사진만 얼른 찍고 지나간다고 한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주마간산 격으로 스치고 지나간다고 생각하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오후에는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도 즐기고, 파묵칼레 인근에 있는 '카라하이트'란 작은 동네를 둘러본다. 재래시장에서 터키식 빈대떡이라고 할 수 있는 '괴즐레메', '석류주스'도 맛보고 '한국전 참전용사 가게'라고 큼지막하게 한글로 쓰인 기념품점(이곳도 테러 발생 이전엔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꽤나 들이닥쳤던 것 같다.)에 들어가서 터키 젤리인 '로콤'도 구입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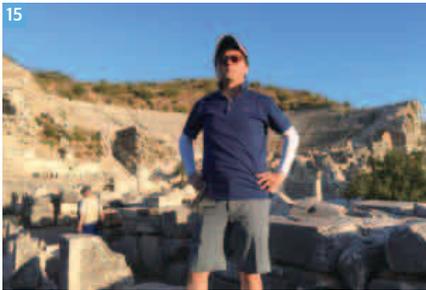
호텔로 돌아와서 호텔 내 수영장 옆 야외 잔디밭에서 분위기 있게 저녁식사(토마토소프, 야채샐러드, 피프테, 양고기케밥, 생선요리 등)를 마치고 오늘 하루의 일정을 접는다. 부모님 모시고 되도록 적게 걸으려고 했는데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보니 스마트폰 앱이 여행 중 최고인 약 1만 걸음을 알린다.

### 9/15 목 맑음 (6일차, 터키 에베소/실축/쉬린제)

오늘은 터키 여행 중 처음으로 새벽 첫 기도시간을 알리는 소리를 못 듣고 폭 자고 기상한다. 시차 적응이 거의 다 된듯하다. 호텔 조식 후 짐을 싸서 렌터카에 싣고 에베소로 출발한다. 100여km를 달려 '아이딘'이란 도시에 도착하여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쓰린 어머니를 위해 위장약을 사려고 했으나 바이람 연휴 관계로 약국들도 문을 닫은 관계로 약 구입을 포기하고 다시 에베소를 향해 달린다. 도로 상태가 양호하고 이정표가 잘 되어 있어서 운전하기는 편하다.(하지만 이스탄불에서의 운전은 정체가 극심하고 운전도 양보 없이 난폭하게 해서 권하고 싶지 않다.) 광활한 대지를 가로질러 점심 무렵 숙소가 위치한 '쉬린제' 마을 호텔에 도착한다. '쉬린제'는 터키 속의 예쁘고 아기자기한 그리스인 마을이다. 이곳도 바이람 연휴 마지막 날임을 아쉬워하는 듯이 엄청난 인파가 거리를 오가고 있다. 숙소에 딸린 식당의 3층 전망 좋은 방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며 점심식사를 운치 있게 즐기고 에베소로 출발하여 첫 번째 방문지인 '성 요한 교회 및 무덤'(입장료 10리라)으로 들어선다. '십자가의 교회'로도 불린 '성 요한 교회'의 규모는 당시 130m\*65m로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큰 교회였다고 한다. 현재는 잦은 지진으로 피해를 당하여 그 원형이 많이 손상된 상태이다.

이어서 오늘의 핵심 관광지인 '에베소 유적지'로 발길을 옮긴다. 에베소는 당시에 번창한 항구였으나 지금은 토사의 퇴적으로 해안으로부터 10km 이상 떨어진 지역이 되어버렸다. 에베소 유적지 주차장에 주차를 마치고 호객꾼이 다가온다. 연로한 부모님을 보더니 에베소 유적지를 왕복으로 4km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보는 것은 불가능하니 마차를 타라고 권한다. 가격도 10리라 할인해주면서 말이다(마차 탑승료 40리라)

13 히에라폴리스 유적



에베소 유적지 후문까지 마차로 주위의 산을 한 바퀴 돌아 흠먼지 풀풀 나는 시골길을 달리며 유람하는 맛도 여행의 좋은 추억거리이다. 에베소 유적은 지금도 계속 발굴 중이며, 학자들이 평생을 바쳐 연구해도 끝이 없을 정도의 유물이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후문에서 티켓을 끊고(입장료 40리라) 들어가니 좌측으로 엄청난 규모의 야외 원형극장이 나를 압도하며 다가온다. 유럽대륙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원형극장을 보았지만 스케일이 정말이지 남다르다. 아직도 이 무대에서 공연을 할 정도로 정밀하게 음향공학적인 설계가 잘 되어 있는데 2,000여 년 전 고대인들의 삶과 지혜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이 원형극장이 2만 명가량 수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그 10배인 약 20만 명이 에베소에 거주했으리라 유추한다. 기원전 3세기경 세워진 도시인데 목욕탕(the VARIUS BATH), 공중화장실, 아고라(Agora), 분수, 유곽, 대리석으로 치장된 대로 등을 걷다 보면 치밀한 도시계획의 모습이 엿보인다.

다음으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터키 버가모 도서관과 함께 고대 3대 도서관 중 하나였던 '셀수스 도서관'이 나온다. 소아시아의 총독이었던 셀수스를 기념하여 그의 아들이 서기 135년에 완공했다고 한다. 12,000여 장서가 보관되어 있었던 이곳에는 각각 지혜(Sophia), 사색(Thought), 학문(Episteme), 미덕(Arete)을 상징하는 여성 조각상이 4개의 도서관 문 입구를 장식하며 지키고 있다. 대로를 걷던 중 외국인 아이가 쫓아오며 '곤니찌와'를 외친다. 나는 '안녕하세요'란 한국 인사말을 그 꼬마에게 자상하게(?) 알려주고 다시 가던 길을 간다.



약 1,4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는 'ODEON CONCERT HALL'을 끝으로 에베소 유적지를 뒤로하고 나온다. 저녁이 되니 한가위 보름달이 크고 밝게 떠올라 쉬린제 숙소로 향하는 길을 환히 밝혀준다. '아~ 오늘이 추석이구나' 정신없이 여행 다니느라 추석인 걸 깜빡 잊을 뻔했다. 호텔 근처 식당에서 만찬(괴프테, 소고기 케밥, 필라브, 샐러드, 음료수 등)을 즐기고 와인, 비누, 올리브오일, 석류액기스, 오디주스 등으로 유명한 쉬린제 마을의 마지막 밤거리를 산책하며 기념품도 구입하고 호텔로 돌아와 피곤한 몸을 누인다.

지면상 9월 10일부터 21일까지의 여행 기간 중 반 정도만 우선 연재를 하고, 나머지는 다음 12월호에 이어진다. 여행의 나머지 부분에선 터키 이스탄불과 그리스 아테네에서의 하루하루를 살펴보고자 한다. 📖

14 성 요한 교회 유적지에서

15 에베소 유적 중 대형 원형극장 앞에서

16 에베소 유적 중 셀수스 도서관 전경

17 에베소 유적 중 大路